

친일인사 4,370명

박정희·김성수 등 포함 '인명사전' 내달 공개

식민지 시절 일제에 협력한 인사들의 행적을 담은 '친일인명사전'이 다음달 8일 공개된다.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는 지난 8년간의 편찬 작업을 1차로 마무리하고 다음달 8일 오후 2시 숙명 아트홀에서 '친일인명사전 발간 보고대회'를 열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총 3권, 3천페이지에 달하는 이 사전은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하는 '친일문제연구총서' 중 인명편으로, 일제 식민통치와 전쟁에 협력한 인물 4천370여명의 주요 친일 행각과 해방 이후 행적 등을 담고 있다.

수록된 인물 중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김성수 전 부통령, 장면 전 국무총리, 현상운 고려대 초대 총장, 무용가 최승희, 음악가 안

익태, 홍난파 등 사회 지도층 유력 인사들이 상당히 많다. 신현학(1920~2007) 전 국무총리와 최근우(1897~1961) 전 사회당 창당준비위원장 등은 지난해 4월 발표됐던 '친일 명단'에 포함됐으나 유족들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사전 수록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외에도 친일사전 수록이 보

류된 400여명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벌여 향후 사전을 개정·보완할 때 반영키로 했다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2001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편찬 작업에 착수한 민족문제연구소는 8년간 3천여종의 문헌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250만 명의 인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확인·심의 작업을 거쳐 최종 수록대상을 선정했다. /연합뉴스

이후락 前 중정부장 입원

이후락(85) 전 중앙정보부 부장이 입원 치료 중이라고 경희대 동신서의 학병원 관계자는 28일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입원한 지 약 170 일이 되는데 상태가 썩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병원 측은 그러나 정확한 병명 등에 대해선 함

구했다.

이 전 부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과 제6대 중앙정보부 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1972년 비밀방북을 통해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후 1980년 권역형 부정 축재 혐의로 모든 공직에서 사퇴한 뒤 특별조치법에 의해 정치 활동을 규제받았다가 1985년 해금됐다. /연합뉴스

국민 만평

- 김종우



'아프간 파병' 남들이 웃습니다

한쪽선 통합대회 한쪽은 반대 청원… 방송차량 동원 찬·반 홍보

지자체 통합 여론조사 곳곳 '시끌'

행안부 '목포·무안 공무원 개입' 집중 감시

자치단체 자율통합 추진에 대한 주민 여론조사가 28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해당 시·군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방송차량까지 동원해 찬·반 홍보전을 치열하게 벌이는 등 신경전이 펼쳐졌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공무원 개입 논란이 일었던 목포시와 무안군에 직원을 파견, 공무원 개입 등 관권 개입에 대한 집중 감시도 벌이고 있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무안반

에 대한 주민여론조사가 시작되면서 각 지역의 통합 찬성 단체와 반대 단체들이 각각 통합 다짐 결의대회와 통합 반대 주민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힘 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목포지역 민간, 사회단체 회원 600여 명은 이날 오전 목포 문화예술회관에서 무안반도 통합 다짐대회를 열었다. 대회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자율 통합에 대한 무안, 신안 지역 주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고 무안, 신안지역 자치단체장이 허심탄회하게 대화의 장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호소문과 통합 시 무안, 신안지역 지원을 위한 결의문이 제택됐다.

이들은 "한 뿐인 무안반도가 지역의 동질성 회복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자율통합이라는 좋은 기회를 맞았지만 일부 지역에서 정부의 자율통합 정책을 바로 알리지 않고 반대 분위기 조성으로 통합에 대한 지역 주민의 올바른 의사 결정을 방해하고, 주민 간 갈등과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통합 시 3개 시·군 동수의 추진위원회 구성, 통합시 청사를 무안에 설치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제택했다.

반면, 무안반도 통합에 반대하는 지역사회단체인 '무안사랑포럼'은 이날 통합에 반대하는 내용의 청원서와 3만6천여 명의 주민서명을 무안군의회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청원서에서 "통합반대에 대한 지역민의 여론이 어느 때보다 높은데도 정부가 지역의 특성과 정서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무안사랑포럼은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하기 힘든 만큼 무안군의회가 의견을 통해 반대의사를 분명하게 밝혀 주민투표가 실시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에도 공문을 발송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녹색성장 포럼' 뜬다

(사)녹색성장포럼이 28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회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갖고 있다. 이날 출범한 녹색성장 포럼은 광주시의 녹색성장 정책을 개발하고 에너지 절감 등 시민운동을 주도하게 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뻥 뚫린 철책…관련자 엄중문책

합참 '민간인 유통' 조사…경계시스템 재정비

합동참모본부는 28일 강원도 고성군의 최전방 철책 절단과 관련, '남쪽에서 북쪽으로 향해 뚫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의 박성우 공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철책 절단 시기와 민간인 유통 경로, 철책 절단 확인 시점 등을 현재 조사 중'이라면서 그같이 말했다.

박 실장은 '철책 절단 사건의 철자한 조사를 위해 합참 전비세계검열단이 해당 부대에 파견됐다'면서 '철자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조사 후에는 철책 경계시스템을 재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날 1,3군지역의 전체 철책을 일제히 점검했으며 고성군의 철책 한 곳이 뚫린 것을 확인했다'면서

"현장 경계근무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군은 전날 남한 주민 강동립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북한의 주장과 관련, 전 군사분계선에 걸쳐 철책 훈련을 정밀 점검한 결과 동부전선 모사단 책임자지역에 최전방 철책이 'ㄴ'자 형태로 30cm, 세로 40cm 규모로 절단된 것을 확인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월북자가 철책을 'ㄴ'자 형태로 잘라 밀어낸 뒤 통과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번에 철책이 뚫린 부대에서는 1996년 9월에도 동일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인터넷 해킹 '꼼짝마'

전남도 '사이버침해대응센터' 가동

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이았다.

하지만, 이번 센터 구축에 따라 사전 예방활동과 실시간 침해 상황 감시를 할 수 있고, 도민의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보안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센터 구축을 위해 그동안 11억 원을 투입해 통합보안관제 및 사이버침해 대응시스템, 종합 상황실 보강 등 각종 보안장비를 도입해 사이버 보안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사이버 위협 징후가 발생할 경우 국가정보원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이상 징후에 대한 정보를 접수한 뒤 조치하는 형태를 취해 고도화·지능화된 사이버 공격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한 전남도는 아울러 올 연말까지 22개 시·군 인터넷 및 행정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도 보안관제 기능을 점차 확대해 실시간 관제 및 탐지활동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행정처분 의견제출 기간

'최소 10일 이상' 명문화

행정안전부는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을 최소한 10일 이상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의 '행정절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행정처분 의견 제출 기간을 '상당한 기간'으로 규정해 행정청이 편의에 따라 3~7일만 설정, 당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자기 입장을 개진 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에는 행정처분 당사자들이 의견제출 시 청문 실시를 요구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연합뉴스

광고 접수 안내

광양시 공고 제2009-1314호	
광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원, 도로) 변경 결정(안) 공람 공고	
광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원, 도로)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공급 시험법」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공람을 하고자 한다.	
2009. 10. 29.	
광 양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변경 개요	
· 번경 대상 : 용도지역 변경, 공원 신설, 도로(소도)변경	
· 위치 : 광양시 봉암면 신사리 135번지 일원	
· 변경 주요 내용	
2. 공급기간 및 장소	
· 공급 기간 : 2009. 10. 29. ~ 2009. 11. 12.(14일)	
· 공급 장소 : 광양시청 도서관, 문화체육관	
3. 의견 제출	
· 제출 기간 : 광양기관 민원일 까지	
· 제출 방법 : 광양읍소재지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식에 의거 서면 제출	
4. 관리도서 및 세부내용 : 개별설명(광양읍소재지)	
5.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도시과(061-797-34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김정기(380728-1651619)상속에 대한 공고, 한정승인에 따른 재권자에 대한 공고, 회고(회고자에 대한 공고, 회고자에 대한 회고)에 관한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 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재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 제외함.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 제2009 느단 913
공 고 인 : 김영복, 김영선, 김영현
한정승인수리일 : 2009. 10. 21.
공고기간 : 2009. 10. 28.~2009. 12.27(2개월)
연락처 : 광주 북구 오전동 922-11 김영복(010-8619-1748)

합명 공고

합선진건설 주식회사(“갑”)와 성진이엔씨 주식회사(“을”)는 2009년 10월 28일 각 주식회사의 경영권으로서 “갑”은 “을”을 합병하여 그 권리와 부채를 승계하고 “을”은 “을”을 합병하기로 했으며, 경기광주시에 따른 권리와 부채를 합병하는 행위를 위하여 경기광주시에 규정에 의거하여 양측이 합병하는 전기광주인민법원에 제출한 철책을 제출하였다.
2009년 10월 28일
“갑” 합선진건설 주식회사
경기광주 남동구 성남동 218-2
대표이사 박성수
“을” 성진이엔씨 주식회사
경기광주 남동구 신방동 109-44
대표이사 박성수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심진
